

한화, 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방산 ‘30조 잭팟’ 정조준

한화 주가 이달 들어 17.40% 상승
미국 자주포 사업 수주 가능성 부각
KAI와 시너지 통한 패키지 수출 기대

한화그룹이 지상과 해상에 이어 공중·우주 플랫폼까지 묶는 ‘크로스 도메인(Cross-domain)’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방산 메이저 도약을 위한 판짜기를 마쳤다. 한국항공우주(KAI) 지분 인수와 미 육군 자주포(MTC) 시제품 단독 선정이라는 두 가지 대형 모멘텀을 연이어 확보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10조~30조 잭팟 노리는 K9MH…수주 가치 재평가에 눈높이도 ‘쑥’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한화는 17.40% 상승했으며, 최근 한 달간 ‘PLUS 한화그룹주’ ETF의 수익률은 6.73%로 집계됐다. PLUS 한화그룹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방산 주 비중이 약 40%에 달해 최근 방산 수주 확대에 따른 수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한화그룹 상장사 중 방위산업(방산) 관련 기업인 한화에어로



한화 그룹주가 한국항공우주(KAI) 지분 인수와 미 육군 자주포(MTC) 시제품 단독 선정이라는 호재가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스페이스의 주가는 20.17% 뛰었으며, 한화시스템도 16.32% 급등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이달에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884억원 담았으며, 한화오션은 1727억원 사들이며 3번째로 많이 순매수했다.

지난 1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이 추진하는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단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약 1417억

원 규모이며, 누적 액면가는 약 3715억원이다.

미국 자회사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인 기동 전술포(MTC) 시제품 제작업체로 사실상 단독 선정된 것은 그룹 멀티플 상향의 결정적 촉매제다. 이번 계약은 미국에 K9

차륜형 자주포(K9MH) 6문을 우선 공급하고, 12문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향후 약 4년간 성능평가를

2030세대 ‘하늬’, 중장년은 ‘삼전’ 담았다

키움證, 고객자산가 포폴 세대별 차이
예탁자산 10억 이상 고객 80.7% ↑

고객자산가들의 주식 투자에서도 세대별 선호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20~30대 고객자산가는 성장성이 높은 SK하이닉스를 최선호 종목으로 꼽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올해 국내 증지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된 가운데 고객자산가들 역시 세대별 투자 전략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달리 가져가는 모습이다.

25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 고객 수는 90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말 813만명에서 92만명가량 증가했다. 특히 예탁자산 10억원 이상 고객 수는 1년 만에 80.7% 급증했고, 30억원 이상 고객도 약 90% 늘었다.

고객자산가층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의 투자 종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NAV

주가 고객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두산에너지빌리티 등의 존재감이 커졌다.

10억원 이상 고객의 보유 종목을 보면 지난해 7월에는 삼성전자, NAVER, SK하이닉스, 카카오, 두산에너지빌리티 순이었다. 올해는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2위로 올라섰고 현대차와 두산에너지빌리티, NAVER가 뒤를 이었다. 30억원 이상 고객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전자, NAVER, 카카오, SK하이닉스, 두산에너지빌리티 순이었던 상위 종목은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전기로 재편됐다.

특히 세대별로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하다. 20대 이하와 30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SK하이닉스였다. 지난해 7월까지 두 연령대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했던 SK하이닉스가 올해 나란히 1위로 올라섰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젊은 투자자들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국내 대표주이자 시장 지배력을 갖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성향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실제자금 흐름에서도 두 종목의 존재감은 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개인투자자는 삼성전자를 약 50조6450억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사들였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에도 약 4조9831억원의 순매수 자금이 유입됐다. 고객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올해 개인투자자 전체의 매수 흐름과 맞물려 있는 셈이다.

다만 세대별로 보면 같은 대형주 안에서도 투자 목적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고객자산가들의 투자 행태를 살펴보면 2030세대에서는 성장 기대가 높은 종목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는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시장 대표성과 안정성을 갖춘 종목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운용사 40%, 의결권 행사사유 ‘형식적’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

자산운용사 10곳 중 4곳은 주주총회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의결권 행사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찬성하거나 의결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운용사도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자산운용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열고 285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결과를 공

개했다.

점검 결과 전체 운용사의 42.4%인 121개사는 주주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표현으로 행사사유를 기재했다.

안건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의 문이 드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모든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운용사는 50곳, 일괄 찬성한 운용사는 86곳이었다.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곳은 87곳,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곳은 68곳으로

집계됐다. 투자 대상 법인과 관계가 밝지 않은 운용사도 134곳에 달했다.

서로 다른 안건에 동일한 행사사유를 반복해 적은 비율은 중소형사에서 특히 높았다. 중소형 운용사의 중복기재율은 31.1%로 대형사 11.6%의 약 3배 수준이었다.

다만 공모운용사를 중심으로 내부관리체계를 갖추는 움직임은 확대됐다. 점검 대상 공모운용사 67곳 가운데 의결권 행사 전담조직을 설치한 곳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18곳으로 늘었다. 의사결정기구를 둔 운용사는 36곳에서 40곳, 관련 핵심성과지표(KPI)를 마련한 곳은 12곳에서 20곳으로 증가했다.

/허정윤 기자

SKT, AI·엔트로픽 업고 주가 91% ‘껍충’

KT-0.19%, LG유플러스 -1.01%

SK텔레콤이 실적 개선세를 바탕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뛰며 통신 3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사업 기대감과 엔트로픽 지분 가치 등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SK텔레콤의 주가 상승률은 91.21%에 달한다. 반면 KT(-0.19%)와 LG유플러스(-1.01%)는 제자리 걸음이다.

증권가는 SK텔레콤이 향후 AI데이터센터(AIDC) 사업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감이 투자자를 불러 모으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SKT의 경우엔 AI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AI 무선접속망(RAN), SK하이퍼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자사주 수급을 바탕으로 한 주가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SKT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

타 시장에 대비한 만큼, 신규 시장에 연착륙하는 것을 넘어 재빨리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K9MH 양산 여부는 2029~2030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산이 결정될 경우 2030년대의 실적 예상치 상향을 바탕으로 적정가치를 또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31조6543억원, 4조5211억원으로 추정했다.

◆ KAI 지분 15.89%의 힘…‘육·해·공 완제기’ 수직계열화 완성

시장에서는 한화그룹의 KAI 지분 인수가 지니는 전략적 시너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육상(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양(한화오션)에 이어 공중 플랫폼까지 확장함으로써 육해공과 우주를 아우르는 ‘크로스 도메인’ 포트폴리오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0일 KAI 주식 3.45%를 장내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을 합산해 총 15.89%로 높아진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따는AI로 생성한 ‘통신 3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승부’ 관련 이미지.

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은정 DB증권 연구원은 “SKT가 AIDC 확장을 위해 7500억원 출자로 SK하이퍼를 설립하고, 부지와 수전을 확보한다. 고객 유치와 DC 사업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자금 이상의 필요 자금은 고객 확보 후 재무적투자자(FI) 유치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부턴 울산 AIDC와 AI팩토리를 순차적으로 열고, 2029년부터는 (전력용량)5GW, 2035년부터 15GW급 AIDC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

고위험 공모펀드 ‘20% 손실’ 이력도 공개

금감원,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

앞으로 해외 부동산이나 레버리지 등 고위험 공모펀드를 출시할 때 운용사는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위험을 최대 4개로 추려 쉽게 설명해야 한다. 같은 유형의 상품에서 20%가 넘는 손실이 발생한 전력이 있다면 해당 상품과 손실 규모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공모펀드의 주요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서

식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있거나 상품 구조상 위험이 크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펀드 유형이다. 해외 부동산·해외 리츠(REITs)·주가연계펀드(ELF)·과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인버스, 커비드콜·목표전환형·금현물·해외 재간접 펀드가 포함된다.

운용사는 대상 펀드를 새로 출시할 때 원본손실 위험 1개와 상품별 특수위험 최대 3개 등 핵심 위험을 최대 4개로 정리해야 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